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27>

JCCT 2022-1-25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

Case of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in the subject of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i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

김지현*

Kim Ji-hyu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를 통해 비대면 수업 및 다양한 교수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연구는 2021년 1학기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강의를 수강하는 C지역의 B대학교 학생, 즉 예비유아교사 1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교재교구제작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을 위하여 동영상 강의, 실시간 zoom 수업, 빈번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예비유아교사들의 ‘참여’활동이 수행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참여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교재교구 관련 발문에 대한 댓글 달기, 반성적 저널 및 참관보고서 작성을 통한 교재교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교재교구제작 계획, 과정, 결과의 단계별 발표 활동이 수행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경험을 탐색한 결과,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경험’,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소통을 통한 효율성 증가와 부담감 감소’, ‘결과보다는 과정’, ‘비대면 수업 시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라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교재교구, 교수-학습, 예비유아교사, 비대면 수업

Abstract This study is the case of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in the subject of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in the pre-child teacher training program. The study conducted a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model for 18 students at B University in region C who took lectures on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As a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model, it consisted of video lectures, real-time zoom classes, and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through frequent feedback and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As a teaching-learning strategy for the particip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mment on ques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materials, in-depth reflection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through writing reflective journals and observation reports, and step-by-step presentation of making childhood materials plans, processes, and result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experience of making early childhood material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actors such as "growth experience through trial and error," "thinking from child's point of view", "Increase efficiency and reduce burden through communication", "Process rather than result"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n non-face-to-face classes"

Key words : Teaching Materials, Teaching-Learn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Non-face-to-face Classes

*정회원,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2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29, 2021 / Revised: January 1,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wink723@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Korea

1. 서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놀잇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유아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매우 자연스럽다. 유아는 애착 인형에게 정서적으로 대화하고, 오뎅이 인형과 같은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의 원리를 경험하기도 한다. 유아교육에서는 놀이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놀이 활동의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교재교구에 해당하며,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는 일상적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 [1]되어야 한다.

교재교구는 발달적 특성상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자 도구다 [2].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월드, 플래시와 같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는 문자 정보, 그림 정보, 소리 정보,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3] 유아 교육기관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교재교구이다. 유아교사가 제작하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그림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제작한 빅북(big book) 형태의 이야기 자료, 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제작한 디오라마,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나누기 위한 자료 등 또한 교재교구이다. 교재교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교재는 학문이나 기에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하고, 교구는 학습을 구체화, 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칠판, 패드, 표본, 모형 따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교재교구의 개념은 모든 기계나 자료를 의미했던 협의의 개념에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과 자연이 유아에게 내어주고 유아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 또한 교재교구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즉, 숲으로 산책을 하는 중 발견한 가을 은행잎, 단풍잎, 솔방울, 도토리도 교재교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든 자료와 재료가 교재교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교사가 지원하는 교재교구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배움'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놀잇감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은 이러한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놀이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고, 직접 조작

하고 만지며 탐색 및 관찰하는 과정에서 신체 및 감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 또래와 함께 교재교구를 사용하며 차례, 규칙, 양보, 배려 등 친사회적 행동 형성과 창의성 및 예술성을 갖춘 표현 능력을 기름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하게 된다 [5]. 여러 가지 재료와 소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작된 교재교구는 유아의 감각에 자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6]. 교재교구는 유아에게 감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을 줄 수 있어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7].

교재교구는 유아교사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 보육 및 교육 활동의 계획과 실행, 평가 등은 유아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아의 건강하고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교재교구를 제공해야 한다 [8]. 특히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며 교사의 융통성과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놀이상황과 필요에 기반하고, 유아들의 놀이가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로서의 교재교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9].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사는 놀이를 관찰하다가 공간 구성을 바꾸기도 하고, 유아교사의 새로운 자료 제공 등의 물리적, 환경적 지원을 통해 유아의 새로운 놀이가 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환경에 교사가 붙여놓은 '연구소, 연구원' 사진 한 장이 유아의 '발명연구소 놀이' [10]로 발현될 수 있고, 상시 교재교구로 제시한 유아교사의 규칙이 있는 게임 놀이판은 산책길에서 가져온 도토리의 수세기관이 될 수 있으며, 교사가 제작한 교통기관 그림 카드는 유아들의 이야기 꾸미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재교구를 연구하고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교육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으며, '놀이 중심교육'은 '놀이'와 '교육'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영역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실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11, 12]. 유아교사가 준비하는 교재교구는 이러한 놀이와 교육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학생 시절부터 습득된 교수 매체 개발과정과 평가, 선정에 대한 경험은 현장의 유아교사로 임하게 될 때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적 가치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교수 매체를 개발하고 선정할 수 있는 유아교사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3].

한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포하고, 교육부는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대학과 전공,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비대면 수업은 흔히 알려진 원격수업의 형태로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웹기반 서비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대형 강의식 수업’, ‘사전학습 자료가 있는 중소형 강의식 수업’, ‘사전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중소형 토의식 수업’, ‘사전학습이 요구되는 중소형 토의식 수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전학습 자료가 있는 중소형 실습식 수업’ 등 5가지 형태로 비대면 수업의 유형을 분류 [14]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비대면 수업이든, 대학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비롯하여 zoom, google mee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15]하게 되었고, 기존의 대면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교재의 사용과 강의방식에 대하여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6]. 연구자 역시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교과목의 특성상, 교재교구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이며, 교재교구제작 수업은 대면 상황에서도 빈번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교과목이다. 이에,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관련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난감함을 느꼈으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요소들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강의계획, 수업교재, 과제수행, 수업몰입도, 수업 효율 면에서 대면 수업보다 더 많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17]. 온라인 수업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교수자가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 [16]과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추어 자기주도학습을 하거나,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에,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교재교구 연구를 위한 이론 강의를 위하여 연구자는 온라인 플랫폼 실시간 수업(zoom 플랫폼)과 동영상 이론 강의를 학교 사이버 강의실에 탑재하기로 계획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융합을 가속화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8], 교육기관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요구되는 온라인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전략은 그 요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비대면 수업에서의 수업 설계, 전략 수립,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 기반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19]. 교재교구 또한 개정된 누리과정의 영유아 놀이가 지원되기 위해, 그리고 놀이가 지속되고 확장·심화되기 위한 교재교구의 제공 및 준비 등이 필요한데, 이는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수업 경험을 통해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기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 결과 [19]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자는 교수자의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채팅 매체(카카오톡, google meet)를 통해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19]. 결과적으로 비대면 수업 시 교수자와 예비유아교사 간, 예비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소통과 참여가 극대화된 교수-학습 전략을 실시한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를 소개하고, 비대면 교수-학습 기반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경험을 탐색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대면 수업을 통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연구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비대면 수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변화 추이에 부합하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창의, 융합, 공유’가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는 [20] 사례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는 어떠한가?
2. 비대면 교수-학습 기반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C지역, B대학의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들로서, 2021년 1학기 교직과목인 ‘유아 교재교구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을 수강하는 18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명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다(표 1참고).

표 1. 연구 참여자의 국적과 학년

Table 1. Nationality and grade of the study participants.

국적		학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대한민국	17	3학년	6
중국	1	4학년	12

2.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학년도 1학기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수행한 교수-학습 전략 사례를 소개하고,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학년도 3월 둘째 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15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실시간 zoom 강의와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발문, zoom 플랫폼에서의 예비유아교사들의 발표로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실시간 zoom 수업을 통해 녹화 및 기록되었으며, 교수자, 즉 연구자와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대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는 대화창(B talk 앱)과 카카오톡, 전화 통화 및 zoom을 사용하였고, 예비유아교사들 간에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카카오톡과 zoom으로 소통하였다. 이외에도 예비유아교사들은 반성적 저널과, 교재교구 제작 계획안 및 설명서를 작성하였고, 프로젝트 팀원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연구자의 이메일(e-mail)을 통해 전송받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모든 수업은 기록(녹화)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발표 영상자료,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및 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피드백은 진사하였고,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 참관보고서 등의 자료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자가 연구 문제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와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들의 두 가지 범주로 내용을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zoom 플랫폼 실시간 수업, 동영상 강의, 연구자 및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소통 및 참여, 예비유아교사들의 제작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연구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 2인,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검토받은 후 연구에 인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15주 진행 과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개인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자신의 교재교구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재교구 관련 다양한 관점의 이론과 지식,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이론 및 실제, 팀 프로젝트를 위한 팀 구성과 팀 놀이 주제 정하기,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 소개 및 제작한 교재교구와 팀 프로젝트 과정 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표 2.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비대면 교수-학습 모형

Table 2.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model in the subject of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주차	교수-학습 내용
1주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및 한 학기 진행 과정 소개 팀 프로젝트를 위한 팀 구성하기와 놀이 주제에 대한 안내 교재교구제작 관련 발문과 의견 댓글 달기
2-5주	유아 교재교구 관련 이론 강의 팀 프로젝트 내의 놀이 주제 정하기 개인별 교재교구제작 계획안 작성 및 피드백 교재교구제작 관련 발문과 의견 댓글 달기
6주	개인 교재교구제작 계획안 발표 및 공유
7주	유아 교재교구 관련 이론 강의 교재교구제작 관련 발문과 의견 댓글 달기
8주	교재교구 관련 이론 평가
9-12주	유아 교재교구 관련 이론 강의 팀 프로젝트 피드백 및 보고서 작성 교재교구제작 관련 발문과 의견 댓글 달기
13주	팀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교재교구제작 관련 발문과 의견 댓글 달기
14-15주	완성된 개인 교재교구발표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 사례로서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동영상 강의 탑재, 실시간 zoom 수업, 소통과 참여를 위한 빈번한 비대면 피드백 및 발표, 팀 프로젝트, 교재교구 관련 발문과 토의, 예비유아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참관보고서와 반성적 저널 작성 등이다. 교수-학습 사례의 구체적인 전략은 표 3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표 3.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

Table 3. Non-face-to-face teaching-learning Strategy in the subject of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	주체	내용	매체	
동영상 강의	연구자	교재교구제작 관련 이론 및 실제	과워포인트와 zoom 플랫폼	
실시간 zoom 수업	연구자 연구자 - 예비유아 교사	교재교구제작 관련 이론 및 실제, 그리고 피드백	zoom 플랫폼	
소통	피드백	연구자-예비유아 교사 1. 교재교구 제작과정에 대한 피드백 2. 팀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피드백	대학에서 제공하는 톡(B-Talk), 카카오톡, zoom 플랫폼	
	팀프로젝트	예비유아 교사-예비유아 교사	교재교구 제작과정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피드백 및 상호작용	카카오톡, zoom 플랫폼
참여	발표	예비유아 교사	개인 교재교구제작 및 팀 프로젝트 진행 과정	zoom 플랫폼
	교재교구 관련 발문과 의견	연구자-예비유아 교사	교재교구에 대한 다양한 주제	사이버 강의실
	반성적 저널	예비유아 교사	교재교구제작 및 발표	한글파일
	참관보고서	비발표자	발표자에 대한 참관보고서	한글파일

비대면 수업 기반의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을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영상 강의

비대면 강의를 위해 연구자는 교재교구 관련 이론 및 실제에 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뒤,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파워포인트를 파일 공유로 하여 강의식 형태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진행하는 연구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수업과 같은 생생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zoom 플랫폼에서 녹화하였다. 대학교 사이버 강의실은 대용량인 동영상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자(연구자)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google 드라이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공유링크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은 3학점 3시간 교과목이고, 연구자는 15주 기간 동안 총 20개의 동영상 링크를 사이버 강의실에 탑재하였고, 하나의 동영상당 평균 재생 시간은 39.65분이었다. 동영상 시청은 빨리감기, 건너뛰기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정상 속도로만 시청해야 출석이 인정되었다.

연구자 입장에서 동영상 강의는 대면 수업에서의 강의보다 훨씬 준비할 부분이 많았다. 파워포인트로 항상 이론 강의내용을 준비하였고, 동영상 강의는 대면 강의와는 달리 예비유아교사들의 반응이나 질문 등에 답을 하는 등의 시간이 없는 연구자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녹화형식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장수는 많이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녹화 도중 예비유아교사들과 대화하는 형식의 질문이나 유머를 하기도 하는 등 강의를 듣는 동안 청취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행하였다. 또한 대면 강의에서는 어떤 실수를 하여도 바로 수정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녹화되는 동영상 영상을 위해서는 실수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녹화하게 되어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반면, 예비유아교사들 입장에서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교 교무처에서는 교수자들이 주차가 지난 동영상 강의를 지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교 측 입장은 "수강자(대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복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비유아교사들도 이 사실에 동의하였다(예비유아교사3).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교재교구제작 아이디어를 얻고, 교재교구 재료를 바꾸는데 참고했어요 (예비유아교사3).

결론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준비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대면 강의보다 훨씬 교육내용이나 기타 준비할 것들도 많지만,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교수-학습 방법이다.

2) 실시간 zoom 플랫폼 수업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은 미리 녹화한 강의 영상을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화상 형태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와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각자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형태가 대면 강의와 다른 점이다. 또한 화상 강의가 대면 강의와 다른 점은 비디오와 소리를 켜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가 비디오 기능과 오디오 기능을 꺼놓으면 다른 사람이 해당 예비유아교사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지만, 연구자나 다른 예비유아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실시간 zoom 플랫폼 수업을 하는 동안 비디오를 끄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음소거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비유아교사들은 집이나 대학교 기숙사 또는 카페 등 여러 장소에서 zoom 플랫폼에 접속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오디오는 본인의 의견이나 질문, 할 말이 있을 때만 켜서 활성화하였다. zoom 수업 또한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 버튼을 눌러 녹화하고 이 역시 연구자 개인의 유튜브나 google drive에 업로드한 후, 예비유아교사들과 함께 하는 사이버 강의실에 링크를 복사하여 올려서 실시간 수업 역시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 zoom 플랫폼 수업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 교재교구 관련 이론 및 실제 강의, 둘째, 개인 교재교구제작 및 팀 프로젝트 보고서 피드백,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발표 및 팀 프로젝트 보고 발표 등이 그것이다. 동영상 강의 녹화만으로는 예비유아교사들과 만나는 일이 적기 때문에 1주당 3학점 시간의 수업 중에서 1학점 시간은 실시간 zoom 플랫폼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을 만났다. 교재교구 관련 이론 및 실제 강의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동영상 강의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3) 소통과 참여

비대면 수업이 교수자 중심의 한방향 수업이 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예비유아교사 간, 예비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연구자 및 예비유아교사 모두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되도록 하였다.

(1) 소통

소통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재교구제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

재교구제작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예비유아교사들 서로의 피드백과 협업을 통한 소통의 일환으로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활동을 실시하였다.

① 피드백(feedback)

연구자의 예비유아교사 개인별 교재교구제작 및 팀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은 zoom 플랫폼 수업 시간, 카카오톡, 문자, e-mail,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B-Talk,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e-mail이나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유아교사가 교재교구제작 계획안을 연구자에게 보내면 연구자가 직접 침삭하여 다시 보내고 이를 예비유아교사가 살펴본 후 개별적 또는 실시간 zoom 플랫폼에서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궁금증이나 발생한 문제 등이 해결에 이르도록 여러 번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②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팀 프로젝트 활동은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한 활동이다. 팀 프로젝트 활동은 개인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동안 생기는 작고 소박한 고민이나 실패경험 나누기, 대안 의논하기, 어렵고 힘든 점 공유하기, 재료를 구하는 장소 및 방법 공유하기 등 연구자와 나누기보다는 동료로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한 소통이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일어난 실패담과 시행착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료의 위로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팀 프로젝트 활동은 개인의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동료들과의 소통이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팀 프로젝트 활동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기 위한 교육 모델 [21]로서의 전략임을 시사한다.

(2) 참여

비대면 교수-학습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참여 방법은 ‘발표, 발문에 대한 댓글 달기, 반성적 저널, 참관보고서’ 등 4가지로 이루어졌다.

① 발표

‘발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전체

의 과정을 담았다. 첫째로 개인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계획안 발표, 두 번째는 개인의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팀을 이루어 진행한 팀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세 번째는 완성된 개인 교재교구제작 발표회 등, 교재교구제작의 처음부터 중간 과정, 완성까지 세 가지 순서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예비유아교사들의 발표는 모두 zoom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팀 프로젝트는 개인 참여 및 과제로서의 교재교구제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구성으로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3인이 하나의 팀(team)이 되어 모두 6개의 팀으로 구성하였다. 팀별로 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별 놀이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주제선정은 유아의 관점에서 발현이 될 만하고 생각되는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의 발현된 주제를 예측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본인이 유아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요즘 관심사나 놀이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 보고 주제망을 정해보는 시간을 선행하였다. 이는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분야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예비유아교사가 직접 작성하여 사이버 강의실에 업로드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수기로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유아교사 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주제망으로 작성해보고 유아들도 하고 싶은 놀이가 있을 것이며 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점을 이해한 뒤, 구성된 팀별로 놀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놀이 주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의 발현된 놀이 주제라고 가상하여 선정하되, 예비유아교사들 자신이 유아가 되어 관심 있는 주제를 토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개의 팀이 정한 유아들의 발현 놀이를 가상하여 정한 주제 및 개인 교재교구명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팀별로 놀이 주제 선정이유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째는 유아의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 셋째는 더불어 살아가기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동네, 옷, 자연, 교통기관, 동물, 모양’ 등의 놀이 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팀

주제 내에서 예비유아교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 놀이의 심화·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풍부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별 2개씩, 3명의 팀 구성원이 한 주제 내에서 6개의 교재교구가 제작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개인 교재교구제작 계획단계, 팀 프로젝트 보고, 완성된 교재교구를 발표로 진행하였다.

표 4. 팀 프로젝트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놀이 주제
Table 4. topic of play for making teacher materials for child

팀	놀이주제	교재교구명
1	우리동네 (환경과 생활)	·동네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까요? ·우리 동네 지도 ·우리 동네를 알아보아요 ·초록불, 빨간불, 신호를 잘 지켜요 ·우리 동네 한 바퀴 ·우리동네 음식(곡식)
2	옷	·옷을 접어서 꾸며보자 ·옷 단어를 찾아보자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요 ·세계여러나라의 옷 ·스스로 해보아요 ·사계절에는 어떤 옷을 입을까
3	자연	·지구가 아파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요 ·동물농장 노래를 불러보아요. ·나는 어디에 살까요? ·별자리 망원경 ·별자리 이어보기
4	교통기관	·숨은 글자를 찾아요 ·육상교통기관 퍼즐을 맞춰요 ·교통기관 이름 ·간다 간다 노래 부르기 ·도로교통 표지판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아요 ·도로 교통 표지판
5	동물	·동물에게 먹이를 주어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동물의 키를 재어보아요 ·나는 곤충일까요 ·북극곰의 집을 지켜요 ·북극곰을 집에 데려다주세요.
6	모양	·도형의 세계 ·재미있게 그림그리기 ·햄버거, 샌드위치를 쌓아보자! ·도형으로 꽃밭을 꾸며보자 ·여러 가지 도형으로 만들기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모양 도장)

② 발문

비대면 교수-학습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문을 실시하였다. 발문은 교재교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깊이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 융통성 및 창의성 등을 발휘하도록 하는 참여 수업이며, 사이버

강의실에 발문에 대한 댓글 달기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5에 발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었다.

표 5. 교재교구에 대한 발문
Table 5. Questioning about teacher's materials for child

발문 내용
1.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재교구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예비유아교사 자신이 놀이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싶은 놀이 주제는 무엇인가요?
3. 예비유아교사 자신이 놀이하고 싶은 놀이를 위해 제작하고 싶은 교재교구는 무엇인가요?
4.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재교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5. 색과 빛에 대해 관심과 놀이를 진행하는 유아의 놀이를 심화, 확장하기 위해 셀로판지를 활용한 교재교구를 제안해보세요.
6. 유아가 직업에 관심을 보일 때, 유아교사도 유아와 함께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고 가정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10개만 조사해보세요.
7-1. 유아가 아닌 예비유아교사 자신이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면, 외국친구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7-2. 유아가 아닌 예비유아교사 자신이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면, 외국 친구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만든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8. 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색종이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한 교재교구를 제안해보세요.
9. 간식으로 먹고 남은 요구르트병이 교재교구 재료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10.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페트병을 활용한 교재교구를 제안해보세요.

모두 11개의 발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댓글 달기 예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은 '색과 빛에 대해 관심과 놀이를 진행하는 유아의 놀이를 심화, 확장하기 위해 셀로판지를 활용한 교재교구를 제안해보세요'의 발문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답글을 발췌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6. 발문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의견
Table 6. pre-child teacher's opinion on questioning

발문 : 색과 빛에 대해 관심과 놀이를 진행하는 유아의 놀이를 심화, 확장하기 위해 셀로판지를 활용한 교재교구를 제안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개비 틀에 여러 가지 색의 셀로판지를 붙인다. 바람에 의해 빙글빙글 돌아가는 셀로판지를 통해 비치는 색을 관찰하며 흥미를 느낄 것 같다. (예비유아교사12) ·여러 가지 빛으로 여러 가지 색깔 옷을 만들어봐요. 옷 모양의 흰색 부직포에 셀로판지를 붙인 손전등을 비춰보아요.(예비유아교사7) ·셀로판지를 활용한 그림자 놀이를 해요. 다양한 색깔의 셀로판지를 부채모양의 동물 틀에 붙이고 낮 시간에 햇빛 아래에서 동물 틀을 비추면 그림자에도 똑같이 알록달록하게 비춰진다.(예비유아교사18) ·휴지속대로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만들어요.(예비유아교사13)

③ 반성적 저널(Reflection Journal)

예비유아교사는 개인 교재교구제작 발표를 마치고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반성적 저널 형식은 ‘개별 성찰지’라는 명칭으로 상단에는 3점 척도의 자가평가를 위한 문항이 있으며, 하단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반성적 저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④ 참관보고서

비대면 수업에서 발표자가 발표하는 시간 동안 참관자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끄거나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다른 팀의 교재교구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관보고서는 발표자의 교재교구와 발표 모습 등 발표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느낌, 생각, 장단점, 배우고 싶은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참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참관자가 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 비대면 교수-학습 기반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경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속에서의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은 어떤 경험이었는지 탐색한 결과는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경험’,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소통을 통한 효율성 증가와 부담감 감소’, ‘결과보다는 과정’, ‘비대면 수업 시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라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경험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도 [5] 연구에서도 예비유아교사들은 ‘계속되는 시행착오로 인한 좌절감’을 겪지만 완성이라는 길 끝에 다다르기 위해 질주를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비대면 수업이라도 대면 수업과 같은 효과를 시사함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지우개 도장을 조각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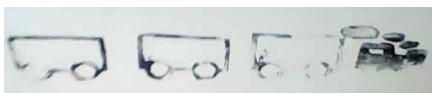


그림 1. 도장 파기의 시행착오로 인해 기차의 앞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

Figure 1. case of direction error of making the train stamp

파는 과정에서 도장이 찍혔을 때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보이는 방향대로 도장을 파서 결과적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찍히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2)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한 예비유아교사는 창의적인 교재교구에 집중한 나머지 대상 연령을 고려하지 못해 어려운 교재교구를 만들기도 하고, 교재교구의 견고함과 심미감을 고려하다가 유아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생각지 못해 후회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반성적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다.

낫시대를 창의적으로만 만들 생각을 했지, 유아들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직 온전하게 유아들을 생각하며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중략...) 하나를 만들더라고 유아의 입장에서서 생각한 후에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예비유아교사1)

3) ‘소통’을 통한 효율성 증가와 부담감 감소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 개개인과 팀에 대해 교재교구제작 과정에 대한 온라인 피드백과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첨삭하여 피드백을 하였고, 예비유아교사들은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대면 수업이 아니지만 자주 제공되는 온라인 피드백과 팀원 소통을 통해 교재교구제작의 효율성은 높이고, 부담감은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반성적 저널에 나타난 내용이다.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팀원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수정방안에 대해 서로 조언해주니 혼자 생각해서 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비유아교사13)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해왔던 팀 프로젝트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른 팀 프로젝트에서는 역할을 나누어 각자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고 발표하고 끝났다면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는 수차례 팀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피드백해주며 같이 함께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예비유아교사14)

예비유아교사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교재교구제작의 효율성을 높였고, 비대면 수업에서의 혼자라는 고립감을 탈피하고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교사라는 꿈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느낌을 가지는 소중한 경험임을 표현하였다.

4) ‘결과’보다는 ‘과정’

예비유아교사들은 과제로서 교재교구제작을 시작하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즐기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과정에서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만들다 보니 과제하는 생각보다 스스로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수업 속에서는 결과만을 중시해 결과물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수업은 과정을 중요시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한 지와 같이 과정에서의 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7)

5) 비대면 수업 시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비대면 수업은 직접 만날 수 없고, 자칫 소홀한 수업 운영으로 비디오 off 기능을 해두고 출석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한방향 강의 중심으로 인해 소통과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한 학기 동안 기계적인 수행 활동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딛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 12는 비대면 수업임에도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 본인의 긍정적 성장감을 보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조원들과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배움의 시간이었다. 비대면이라도 교재교구의 제작과 발표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과목이었음을 느꼈다.(예비유아교사12)

비대면이라도 팀원들과의 상호작용과 강의 영상을 참고하여 교재교구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을 계기로 더 성장하게 되었다. (예비유아교사7)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지며 서로의 피드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교재교구를 어떻게 하면 유아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제작하는 과정이었다. (예비유아교사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수업 형태를 적용하여,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은 동영상 강의, 실시간 zoom 플랫폼 수업, 소통, 참여 등이 진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는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강의 진행이 현장 수업처럼 강의하는 모습이 들어가도록 녹화하였고 실시간 zoom 플랫폼 수업은 18명의 예비유아교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횟수를 높이려 의도했으며, 피드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내용에 치중하였다. ‘소통’은 두 가지 형태의 소통으로써,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한 소통과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대면 수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피드백을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의 계획안 및 최종 발표를 위한 교재교구제작 설명서에 첨삭하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으며, 비대면 수업에서의 한계인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대면 기회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놀이 주제의 교재교구를 개인별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초임교사들은 소통을 통해서 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2]. 이는 본 연구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팀원 간의 소통을 통한 교재교구제작의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장에 나가 초임 교사가 되었을 때 동료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경험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라도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대면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교재교구 관련 발문에 대한 댓글 달기, 반성적 저널 및 참관보고서 작성을 통한 교재교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교재교구제작을 위한 계획단계와 과정, 결과 발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예비유아교사는 반성적 사고능력을 길러 유아교사로서의 유능감을 길러주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3].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참여 활동은 유능감을 키워주는 자아 발전의 수업임을 예비유아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의 교수-학습 전략은 비대면 수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대면 교수-학습 기반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제작 경험을 탐색한 결과는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 경험’,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소통을 통한 효율성 증가와 부담감 감소’, ‘결과보다는 과정’, ‘비대면 수업 시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등의 요인이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획단계의 중요성을 깨달아갔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당혹감을 경험했다는 선행연구 [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작 순서의 문제, 재료선정과 재료 구입 및 다루기, 검토해 가면서 제작해야 함의 중요성 등을 시행착오를 겪고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깔끔하고 견고하게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에 유아의 안전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창의성에 집중한 나머지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팀 프로젝트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소통하는 창구로서 교재교구를 혼자 제작해야 하는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동안 생기는 작고 소박한 고민이나 실패경험 나누기, 대안 의논하기, 어렵고 힘든 점 공유하기, 재료를 구하는 장소 및 방법 공유하기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교재교구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기회가 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여 발표해야 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반성적 저널과 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비대면 교수-학습 수업에서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팀원들의 상호 피드백이 교재교구제작의 큰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놀이 주제 내에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통함은 ‘상호주관성’이 형성되는 소통으로써 교재교구제작이라는 과제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으로 다양한 소통과 상호작용, 참여 등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수업몰입도를 높이고, 과제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선행

연구에서 [17],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수업 평가 학습요인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보다 과제수행, 수업 몰입도, 수업 효율 면에서 더 많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교재교구제작은 빈번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진행한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은 대면 수업에서와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교수자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면 수업보다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야 할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수업 구성이 준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비대면 수업 형태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형태의 수업은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교수-학습 전략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18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인원과 함께 하는 비대면 수업으로, 더 많은 인원수가 수강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과 모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수업의 한계로 많은 인원수가 참여할 경우, zoom 플랫폼의 방관자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S. K. Shim, S.K. Lee, G. H. Byon, E. J. Kim, and Y. S. Jeon,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Yangseowon*, 2019.
- [2] H. S. Hwang, N. W. Park, and S. B. Lee, “An Investigation of Mean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with Creative Thinking Tools,” *유아교육연구*, 37(3), pp 5-28, 2017,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7.37.3.001>
- [3] K. C. Kim and D. J. Kwak, “Devices of Using Multimedia Authoring Tools to Author Multimedia Materials,” 6(1), 1-20.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pp 99-107, 2001.

- [4] S. Y. Lee, "Analysis of Textbooks on Teaching Material Research and Teaching Method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pp 509-528, 2018.
- [5] J. S. Park, "Investigating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pp 418-430,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418>
- [6] K. C. Kim and H. S. Jung,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Change Process of Pre-Kindergarten Teachers in the Course of Teaching Materia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7), pp 267-277. 2018, <http://doi.org/10.35873/ajmahs.2018.8.7.027>
- [7] S. A. Lee, S. Y. Han, E. S. Yoo. and K. E Han, "Research and Guidance on Early Childhood Materials," *Jeongminsa*, 2018.
- [8] S. E. K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lay Materials Used for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Focusing on Integrative Development of Infants: Centering on SCMF (Shape, Color, Material, Finishing) Design Application," *PhD thesi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9.
- [9] A. R. Lee and J. H. Jung, "Metaphorical Awareness of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on Play Material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3), pp 19-42, 2020.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5-3-02>
- [10] A. S. Sh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Early Childhood," *Yangseowon*, 2021.
- [11] C. S. Oh, "Nuri Curriculum, Dialectical Understanding of Play and Education." *유아교육연구*, 39(2). pp 279-305, 2019. DOI : <http://dx.doi.org/10.18023/kjce.2019.39.2.012>
- [12] M. H. RYU, "Philosophy on Becoming an Autonomous Teacher at the Era of Child-Centered, Play-Base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1(1), pp 59-83, 2021, DOI: <http://doi.org/10.21024/pnuedi.31.1.202103.59>
- [13] K. C. Kim and E. O. Kim, "Experiential Story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Material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10.03>
- [14] C. I. Lim, M. J. Kim, J. H. Park, Y. J. Bae, and J. Y. Yeom,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for Synchronous Online Instruction in Various College Cours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7(2), pp. 459-488, 2021.
- [15] S. M. Lee and K. L. Kim,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Non-face-to-Face Class in a Univers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lass Participation," *Research on Educational Methods*, 33(2), pp 341-361, 2021.
- [16] W. H. Choi and Y. K. Jeon, "Case Review of Untact Online Courses based on Video Recording vs. Synchronous Video Conferencing," *Journal of Field-based Lesson Studies*, 1(2), pp. 1-28, 2020
- [17] J. O. Lee,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Factors of Class Evaluation i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pp 143-155, 2021.
- [18] M. K. Lee, "Development of a College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odel in Online Synchronous/Asynchronous Platforms to Enhance Competenc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4), pp.35-42,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35>
- [19] I. R. Lim, J. Y. Kim, J. W. Hwang and D. S. Park, "Exploring Teaching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Non-face-to-face Lecture in College: Focusing on Learner Experienc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0(4), pp 23-54, 2020.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02012.30.4.23>
- [20] E. R. Cho,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Maker Education Program Using Station Teaching Strategy: Focusing on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 Study for Young Children,"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16(6), 155-183, 2020, DOI: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6.155>.
- [21] Y. S. Kim, "The Problem/Project-Based Learning (PBL/PjBL) at Online Cla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9(1), pp. 162- 167, 2021, <https://doi.org/10.17703/IJACT.2021.9.1.162>
- [22] J. J. Kim and O. J. Kim, "An Examination of the Communication within Organizations Beginni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유아교육연구*, 31(6), 191-215, 2011
- [23] J. A. Hwang and S. J. Kim, "Meaning of a Good Class Recogniz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020), pp. 339-345, 2020.